

# 시장 완전개방은 시기상조



孫京植

〈안국화재해상보험(주) 사장〉

## 1. 문제의 기본적 성격에 대한 고찰

11개 국내 손보사가 있는 국내 시장에는 근래에 와서 2개 외국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일·영 3개국의 보험회사가 국내사에 자본참여를 하고 있다.

국내사들의 수에 비하여 볼 때 외국사의 이러한 수는 우리 보험 시장이 이미 대폭 개방되어 있는 형편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손보시장 개방문제가 또다시 거론된다고 함은, 외국인에게 보험사업 신규면허를 더 많이 추가하여 허용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추가개방 요구는 지금까지 정부가 신규면허를 엄격히 억제하여 온 정책을 외국인에 대해서는 완화하라는 말로서, 이는 확실히 외국인에게는 특혜를 달라는 이야기다. 이것은 내국인에게는 개방되어 있는데 외국인에

게는 제한되어 있으니 외국인에게도 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말과는 다른 것이다.

설사 이러한 특혜론은 국제교역의 차원에서 이해를 구한다 치더라도 더 중요한 점은 외국인에 대한 개방이 신규면허 억제정책, 바꾸어 말하면 국내시장에서 보험사업자의 수를 제한해 온 정책을 일보 후퇴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보험사업은 국가경제와 국민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국은 그 사업을 정부의 허가제로 하고 있음은 공통적 현상이다. 그러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보험의 역사적 생성과정의 유래가 깊었던 영·미 등 서구제국과 그 영향권에 있었던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자유로 허가하는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그밖의 나라들은 자유설립주의하의 보험회사 난립으로